는데 兩柱사이의 圓座는 完存하다。

以上은 이번에 調査된 遺物의 大略인데 藏經版庫址의 發見에도 期待를 결었으나 時間 關係로 이번에는 斷念하지 않을 수 없었다。

〔註〕鄭永鎬：八公山 符仁寺(本誌 第一卷 第五號)

# 正德銘 甫州北岳寺 銀絲香垸의 補

黃 壽 永

本誌 五卷 十號(六四年十月)에 실은 表題의 拙稿에서 難解라고 말한 銘文「甫川北岳寺銀糸香元 亦破寺官上破用時諸人鍮鐵收價給述出……」에 대하여 十一月 十日附 洪思俊 先生의 來信이 있어 이곳에 轉載하여 두고자 한다。筆者는「施主諸人이 鍮鐵의 收價를 據出하였다는 뜻인가 한다」고 하였는데 洪氏는 다음과 같이 判讀하였다。

『甫州의 北岳寺銀糸香元은 寺院이 廢하면서 官上(官長=郡守)이 깨어 다른것으로 使用할적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鍮鐵價를 걷어주고 돌려받아 내왔다』

또 銘文中 重八斤二兩이라 있음에 대하여서는 同書信에서「代價에 對한 斤量같고 以下人名은 鍮鐵收價還出의 姓名인듯하며 그러면 刻銘以前에 香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以上 同氏의 判讀과 推定中 이 香垸의 年代問題에 있어서 銘文中에 보이는 正德十一年丙子(一五一六年)는 還出받은 그 年代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므로 筆者 또한 이 香垸의 鑄成은 그보다 올라가는 것이라한 上記意見에 同意하는 바이다。그렇다면 鑄成當初에는 胴部에 보이는 甫州北岳寺라고 銀入絲한 銘文以外의 記銘은 없었다고 생각되므로 이 香垸의 年代는 오직 그 樣式과 彫飾手法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觀點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香垸은 正德에서 멀리 올라가지는 못하는 作品으로 推定하고자 한다。그리하여 이 作品이 高麗銀入絲香垸의 系統을 이어서 造型된 李朝初期의 遺品으로 推定함에 있어서는 本誌拙稿에서와 같다고 하겠다。甫州北岳寺가 廢한 直後 이와같이 收拾된 이 香垸이 어디에서 傳世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혹시 銘文에 보이는 醴泉□□□의 伏字 三字가 그後의 歸屬寺院일런지도 모르겠다。銘文初頭에서 甫川이라 하고 이곳에서 醴泉이라고 하여 新舊 郡名을 幷記한 곳에 이 香垸의 鑄成과 流轉의 年差를 示唆함이 있다。洪先生의 敎示에 대하여 謝意를 표하며 이곳에 補完코자 하는 바이다(十一月二十日)。

# 横城邑內의 塔像(横城佛蹟其二)

鄭 永 鎬

江原道 横城郡廳 뒷편 山麓의 어린이 놀이터에 三層石塔과 石佛坐像이 있다。이 塔像은 原位置가 아닌 바 傳聞한 바에 依하면(敎育廳文化係 崔文鎬氏談) 日帝時 郡內에서 이곳으로 移安한 것이라 하는데① 當時의 移搬經緯는 알 수 없다。六·二五動亂時 郡廳舍가 全燒되어 이 一帶가 廢墟되었을때 이 遺物만은 破損되지 않았고 그後 오늘까지 放置되어왔다。②

石塔은 三層屋蓋石까지 殘存하였으나 初層塔身部까지 埋沒되어 基壇 等 下部構造는 알 수 없다。各身蓋가 一石씩이며 塔身의 兩隅柱는 整然히 刻出되었다。屋蓋石의 받침은 各層 모두 四段式이고 落水面과 轉角의 彫法은 鈍厚한 便이다。蓋石의 上面에는 아무런 괴임도 없이 平坦하며 三層上面에는 徑 六㎝의 圓孔이 있고 金屬이 끼어있는데 이것은 檫柱孔으로 推測된다。屋蓋추녀의 曲線이나 落水面 等 各部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期로 推定된다。實測値는(㎝) 다음과 같다。

| | | | |
|---|---|---|---|
| 現高 約 二二〇 | 二層身高 一三 | 三層身高 二〇 | |
| 一層身幅 七〇 | 二層幅 六二·五 | 三層身 幅 四八·五 | |
| 一層蓋石長 一〇五 | 二層蓋石長 九五 | 三層蓋石長 七二 | |